

■ 센터 소장 인사말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2020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한 해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국가와 민족을 향한 많은 걱정을 가지게 되는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2020년은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급해 지기도 합니다.

안정된 평화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민족 문화적 측면에서,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출혈이 너무도 크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위 <분단비용>은 이미 우리가 예측하고 하고 있는 <통일비용>을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민족의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이 제대로 된 준비와 중간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충돌의 사건처럼 발생을 하면,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고, 그것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큰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준비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더 많은 준비 활동과 연구가 절실한 2020년입니다.

연세의료원 제중원보건개발원 산하 통일보건의료센터는 그러한 활동과 연구를 위하여 2014년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통일보건의료센터 산하에 의학기획단, 치의학기획단, 간호학기획단, 약학기획단, 보건학기획단의 5개 기획단을 편성하여, 활동과 연구에서의 전문성과 조직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기획단의 단장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과 그 전문위원으로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교직원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는 이들 5개 기획단을 중심으로 새롭고 적극적인 교육, 연구, 참여 활동을 펼쳐질 것입니다.



☐ 센터 소장 인사말

연세의료원 모든 가족 여러분의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세의료원과 통일보건의료센터가 통일을 위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함께 모여질 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진짜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한반도 위에 머무르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 12. 24.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편집자 주] 2014년에 신설된 통일보건의료센터는 2019년에 이르러 더욱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보건학 5개 단과대학별 기획단 체제로 개편되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치의학 기획단, 간호학 기획단, 보건학 기획단 3개 기획단의 기획단장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기획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치의학 기획단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치의학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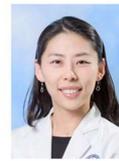
이재훈 단장
치과대학 교수



권재성 위원
치과대학 조교수



정서연 위원
치과대학
연구조교수



최윤정 위원
치과대학 부교수



임주혁 위원
치과대학
본과 1학년



정희인 간사
치과대학 조교수



김명수 사무팀장
치과대학 사무팀장

기획단장 인터뷰

치의학 기획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치의학 기획단은 정희인 예방치의학 교수가 간사를 맡고 있고, 최윤정 교정과 교수, 권재성 치과생체재료학 교수, 정서연 치의학교육과 교수, 행정 간사로 사무팀 김명수 팀장님, 그리고 치과대학 본과 임주혁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치의학 기획단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우선 1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및 대한여자치과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이 지나 선생님에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통일 구강보건연구 및 사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때 받은 자문으로는,
(이어서)

기획단장 인터뷰 (이어)

1.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접근이 필요함
2.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최대한 많이, 꾸준히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3.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북한 방문보다는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 사업이 효과적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과업을 추진 하고자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이지나 선생님이 중국 상해에 위치한 Innovative Material and Devices, Inc. (IMD)에서 진행한 임상교정연수회에 북한 치과 교정과 의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방치과학교실 정회인 교수가 임상연구 설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참고문헌을 전달 하였습니다.

2020년 활동 예정사항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2020년에는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는 북한 치과의사들을 위한 임상교육과정과 면허취득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치과 보건영역에 대한 연구를 수주하여, 관련 결과물들을 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 시대를 대비할 때 통일은 우리 앞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호학 기획단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간호학기획단



추상희 단장
간호대학 교수



김혜진 위원
간호국/
간호대학 겸임교수



이승은 위원
간호대학 조교수



최지연 위원
간호대학 조교수



박은숙 위원
간호국/
간호대학 겸임교수



최은경 위원
간호대학 조교수

기획단장 인터뷰

간호학 기획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간호학 기획단은 간호대학의 이승은교수, 최은경교수, 최지연교수와 간호국 박은숙겸임교수, 김혜진겸임교수를 주축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간호관리학(이승은), 아동간호학(최은경), 성인간호학(최지연)의 다양한 전공분야 간호대학 교수님과 세브란스병원 간호국의 감염관리(박은숙팀장), 수술 및 회복실 특수간호(김혜진파트장) 실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겸임교수님들이 함께 북한 간호교육 및 임상실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에 간호학 기획단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간호학 기획단은 기획단 조직 이전부터, 통일보건의료 분야 학술연구기반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연구과제 개발 및 수주를 위해 지난 몇 년간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바이오마커 기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도구 개발 및 사회적 회복 요소 발굴(연구책임자: 추상희)' 연구과제가 한국연구재단 2019 이공분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보호연구)에 선정될 수 있었으며,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장 인터뷰 (이어)

2020년 활동 예정사항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2020년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통일보건의료 분야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수주하려는 연구 활동을 할 예정이며, 그동안 1학점으로 운영되던 '통일과 간호' 강의를 2020년 2학기에는 2학점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간호대학 학생들이 통일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상실무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보건의료협력개발 사업 내에서 간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발굴하고 기획하는 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남북한 정세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 건강공동체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입니다.

북한의 간호 발전은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기여 등 북한 사회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간호학기획단이 남북한 간호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북한주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에 기여하고자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작은 발걸음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학 기획단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보건학기획단



김소윤 단장
보건대학원 교수



강선주 위원
보건대학원 교수



김희진 위원
보건대학원 교수



이명근 위원
보건대학원 교수



노르브 연구원
보건대학원



이정임 연구원
의료법윤리학협동
과정



최지원 연구원
의료법윤리학협동
과정

기획단장 인터뷰

보건학 기획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학기획단은 단장인 저를 비롯한 이명근 교수님, 강선주 교수님, 김희진 교수님과 노르브 연구원,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의 이정임 연구원, 최지원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보건학 기획단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보건학 기획단은 지난 10월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0년도 활동에 대한 계획을 상의하였으며,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활동 예정사항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단순한 자료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의료법체계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학 기획단은 2020년에 한국의료법학회,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과 더불어 남북보건의료 교류를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정치적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와 상관없이 항상 준비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희 보건학 기획단은 향후 남북한 보건의료의 접점을 찾아 발전시키고자, 긴 안목으로 교류를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H2) - 열린강좌 1, 2

Helper들의 역량강화와 소진 대응을 위한 특별한 강의

2019년 5월, 통일보건의료센터가 통일과나눔 주관의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탈북민 지원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소진(burn-out)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제 2019년을 마감하는 시점인 11월과 12월에 다다라, 이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인, 열린강좌가 시행되었다. 지원자들은 여기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지금 이 강의를 들여다보자.

열린강좌 1

가을의 끝물인 11월, 그 중 14일에 연세의료원 예비슨의생명연구센터 1층에 위치한 유일한홀에서 탈북민 전문 지원자를 위한 열린 강좌가 시행되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특수업무 활동가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전우택 통일 보건의료센터 소장의 강의를 있었으며, 여기서 전문 지원자들은 탈진의 세 가지 핵심 증상의 개념과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방법 등을 익힐 수 있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영철 교수와 손다혜 강사가 각각 중독과 통증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지원자들은 상담을 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강의 종료 후에는, 강연자들이 모여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전문지원자들은 실무를 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열린강좌 2

1차 강좌로부터 3주후, 12월 5일에 동일한 위치(유일한홀)에서 두 번째 열린 강좌가 시행되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의 박철옥 겸임교수의 강의를 통해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SE(Somatic Experiencing)라 부르는 이 기법을 통해, 지원자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원하는 탈북자의 긴장 역시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트라우마 피해자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의 강의를 시행되었다. 이 때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증상, 어려움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질문시간을 통해, 지원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서로 공유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양회에 걸친 열린 강좌를 통해, 많은 전문 지원자들은 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차츰 소홀해지기 쉬운 자신을 돌보는 방법까지도 얻어갈 수 있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이러한 강의가 정말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호평을 해주어, 향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강의였다. 앞으로 이 강좌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정착 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 42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 “북한 영양과 식량 문제, 좋아지고 있는가?”

- 이수경,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6시

□ 장소 : 의과대학 1층 의대회의실



강사 소개 이수경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경력

전) Hunter College 교수

Rutgers University 교수

현)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



영양불량의 정의

영양 불량은 '영양 실조(under)'와 '영양 과다(over)'로 나뉘며 영양 실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부족한 '다량 영양소 섭취 부족'과 비타민, 무기질 등의 부족한 '미량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나뉜다.

북한 영양 현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량 영양소 섭취 부족이며, 이 중 급성 영양 부족이 생겨나 생존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Wasting, 만성 영양 부족으로 장기적인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Stunting이라고 한다.

북한의 영양 상태

북한의 영유아 영양 상태 추이를 관찰하면 Stunting 및 Wasting은 모두 호전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두 증상에 해당하는 영유아 비율이 1998년에는 세계 최고 수치에 이를정도였으나, 현재는 상당히 낮은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 그러나 한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 지표가 높은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적 불평등은 특이할 정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역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영유아 만성 영양 불량 그래프를 살펴보면 평양은 북한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봐야 할 정도로 타 지방과 차이가 크다. 이에 더해, 평양 외에도 도시와 비도시간 영양 불량 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식생활

흔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배급을 주된 식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북한의 일반 민중에는 거의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을 하여도 임금이 나오지 않기에 생존을 위한 생산은 따로 알아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식생활 역시 한국과 비교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따라서 3끼 식사를 다 하긴 하지만 저녁은 국수와 같이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된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아니면 학교, 직장, 심지어 병원까지도 급식이 대부분 없는 상황이다. 외식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

식품 수급 상황을 보면, 근래에 와서 남북 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거의 없다시피하며 북한의 지방 수급량은 전체 지방 수급량이 남한의 식물성 지방 수급량에도 이르지 못한다. 애너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남한이 식물로부터 얻는 에너지원보다도 북한의 총 에너지원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북한은 2000년 이후로 필요한 만큼의 식품을 생산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식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영양불량을 겪었던 어린이들의 신체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탈북해온 어린이들은 남한의 어린이보다 지방으로 얻는 에너지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 탈북 2년만에 이들은 남한 어린이들과 비슷한 정도의 비만율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생애 초기에 영양불량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은 식품이 풍족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해 예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급성 영양불량에 대한 대응의 경우, 과거에는 전세계적으로 의료센터를 짓고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CMAM, 각 지역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플러피넛과 같은 구호식품은 이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만성 영양불량의 경우 급작스럽게 영양 상태가 호전되면 비만 가능성이 급증하기에, 단기간 과다한 에너지를 무조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지양하고 적당한 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활동 소개

연구과제명	바이오마커 기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도구 개발 및 사회적 회복 요소 발굴
책임자	추상희 간호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1. ~ 2024. 5.31 (5년)
연구과제명	수리 모델을 활용한 북한 결핵 및 말라리아 발생 예측 기초 연구
책임자	강영애 의과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28. ~ 2020. 6.27 (1년)

기타·광고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세종 도서 학술부문 선정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은 2018년 7월 부터, 2019년 6월까지 초판 발행된 학술 도서 중, 학술적 가치가 높고 국민 독서 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는 2019년 학술도서로 선정됨에 따라,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까지, 공공도서관 등 850여 곳에 보급 예정에 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TEL 02-2228-0997 ✉ E-mail uni-health@yuhs.ac

🏠 http://www.yuhs.or.kr/mssn_realize/CHUK/intro/

📘 Facebook | www.facebook.com/ys.unihealth